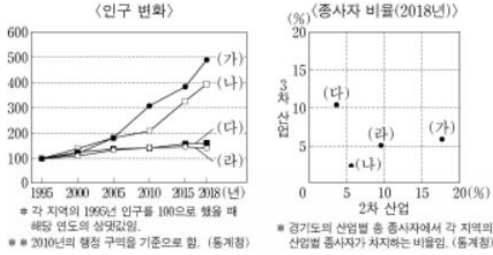


<21학년도 수능 18번>

18. 그래프의 (가)~(라)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(단, (가)~(라)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임.)



<보기>

ㄱ. (가)에는 조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.
 ㄴ. (나)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.
 ㄷ. (다)는 경기도청 소재지이다.
 ㄹ. (라)는 남북한 접경 지역이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[자료해석]

먼저 제시된 지역은 화성, 안산, 수원, 김포이다.

<인구변화> 자료를 살펴보면 (가)와 (나)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인구 증가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(다)와 (라)라는 인구 증가가 거의 정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. <인구변화> 자료를 확인할 때 작은 글씨를 잘 확인하자. 1995년 각 지역의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얼마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지 각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다.

이를 통해 (가)와 (나)가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. 그러므로 (가)와 (나)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그로인한 인구 증가가 뚜렷한 화성(동탄신도시)과 김포(김포한강신도시)라고 할 수 있다. 수원에도 수도권 2기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가 위치해 있다. 그러나 수원은 이로 인한 인구 증가가 화성이나 김포만큼 뚜렷하지는 않다.

그 다음 (가)와 (나)간의 비교를 위해 <종사자 비율> 그래프를 확인해보자. 2차 산업 비중에서 (가)가 (나)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화성과 김포

두 지역 중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공업도시인 화성이 (가), 자동적으로 김포는 (나)로 결정.

(다)와 (라)는 <인구 변화> 자료에선 큰 차이가 없다. 그러나 역시 <종사자 비율> 자료에서 두 지역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. (다)는 3차 산업 비율이, (라)는 2차 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. 그러므로 (다)는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대도시인 수원, (라)는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공업도시 안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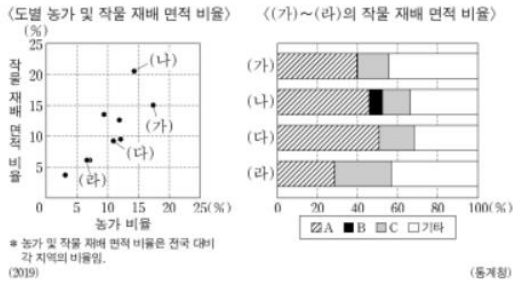
정리하면 (가):화성, (나):김포, (다):수원, (라):안산.

[선지판단]

- ㄱ. 화성에는 조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지 않다. 우리나라 유일의 조력 발전소는 안산에 위치한 시화호 발전소이다.
- ㄴ.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다. 김포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가 위치해 있다.
- ㄷ. 수원은 경기도청 소재지다. 도청 소재지 암기는 기본. 경기 외엔 강원:춘천, 충북:청주, 충남:홍성,예산(내포신도시), 경북:안동, 경남:창원, 전북:전주, 전남:무안 등이 도청 소재지이다.
- ㄹ. 안산은 남북한 접경 지역이 아니다. 제시된 지역 중 남북한 접경 지역을 찾자면 김포가 남북한 접경 지역이다.

<21학년도 수능 20번>

20.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(가)~(라)는 각각 강원, 경기, 경북, 전남 중 하나이며, A~C는 각각 맥류, 벼, 채소 중 하나임.) [3점]



- ① (가)는 전남, (다)는 경기이다.
- ② 벼 재배 면적은 (다)가 (가)보다 넓다.
- ③ B는 C의 그루같이 작물로 주로 재배된다.
- ④ 채소 재배 면적은 경북이 강원보다 넓다.
- ⑤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은 경북이 전남보다 넓다.

[자료해석]

먼저 <도별 농가 및 작물 재배 면적 비율>을 살펴보자. 자료 밑에 작은 글씨로 '전국 대비 각 지역의 비율'이라고 써져 있으니 총량지표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편하다.

작물 재배 면적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건 전국에서도, 주어진 지역 중에서도 전남이다. 그러므로 (나)는 전남으로 결정된다.

그 다음으로 농가 비율은 농가 수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므로 1위는 경북. (가)는 경북으로 결정된다.

(다)와 (라) 역시 <도별 농가 및 작물 재배 면적 비율>에서 경기가 둘 다 강원보다 크므로 구분이 가능하다. 그러나 이는 다음 자료에서 더 확실히 구분 가능하다.

<(가)~(라)의 작물 재배 면적 비율>은 각 지역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.

일단 <도별 농가 및 작물 재배 면적 비율>에서 (가)와 (나)만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로 넘어왔다 생각해보자. A 작물은 네 지역 모두에서 거의 제일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므로 벼로 생각할 수 있다.

그 다음 B는 (나) 전남에서만 많이 재배되고 나머지 지역에선 거의 재배되지 않는 작물로 맥류다. 이렇게 자동으로 하나 남은 C 작물은 채소가 되겠다.

여기서 강원과 경기 확실히 구분이 가능하다. 강원도는 산지가 대부분이라 밭이 많고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 대

비 벼를 적게 재배하고 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특징이 있다.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을 지닌 (라)가 강원으로 결정되고 자동적으로 (다)는 경기가 된다.

정리하면 (가):경북, (나):전남, (다):경기, (라):강원, A:벼, B:맥류, C:채소

[선지판단]

- ① 그냥 (가)는 경북이라고 위에 있다.
- ② 앞서 말했듯 이 문제에서 <도별 농가 및 작물 재배 면적 비율>는 총량지표와 같다고 생각하고 풀면 편하다. (다)의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은 약 9%, 벼 재배 면적 비율은 약 50%. 그냥 간단하게 총 작물 재배 면적을 9라고 생각하면 (다)의 벼 재배 면적은 약 4.5가 된다. 똑같이 (가)를 살펴보면 총 작물 재배 면적은 약 15, 벼 재배 비율은 약 40%로 (가)의 벼 재배 면적은 약 6이 된다. 그러므로 벼 재배 면적은 (가)가 (다)보다 넓다.
- ③ 맥류는 주로 벼의 그루같이 작물로 재배된다.
- ④ 2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풀면 된다. 경북의 총 작물 재배 면적을 약 15라하면 채소 재배 비율은 약 15%로 경북의 채소 재배 면적은 약 2.25가 되고 강원도의 총 작물 재배 면적을 약 7, 채소 재배 비율을 약 25%로 하면 강원도의 채소 재배 면적은 약 1.75로 채소 재배 면적은 경북이 강원보다 넓다.
- ⑤ 이런 선지를 위해 그래프로 나오는 자료에서 기울기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다.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을 농가 비율로 나누면 그 값이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자 <도별 농가 및 작물 재배 면적 비율> 그래프에서 원점과 각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. 원점과 (나):전남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원점과 (가):경북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보다 크므로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은 전남이 경북보다 크다.